

#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 최아름

첫 본과 한 학기를 지내보면서 시험점수에 얽매어서 내가 진심으로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를 찾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고양이수의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저는 마침 덕적도에서 고양이 TNR봉사를 진행한다는 글을 보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아직 많이 배우지 못했던 터라 실습부터 진행해서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꿈 꾸어왔던 수의사의 모습을 잠시나마 보여줄 수 있어서 매우 즐겁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방학을 시작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준비해서 많은 내용을 숙지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약품, 수술도구, 보정법, 차트작성, TPR작성 등 아직 동기들이 배우지 못한 내용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과 조교선생님들을 기준으로 도와드리시는 일을 했습니다. 준비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설렘은 인천으로 향하는 배를 타서부터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념 모자를 받아 머리에 쓰고 배를 타고 인천에서 덕적도로 가는 첫째 날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특히 고양이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고양이수의사 협회회장님인 김재영 원장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원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군인장교분들께서도 오셔서 함께 출발했고 어색한 인사와 함께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함을 몇 분 느끼지 못한 채 따르게 점심을 먹고 지정된 팀에서 외래 진료를 나갔습니다. 외부진료에서는 차를 타고 마을과 마을을 찾아가며 개, 고양이 예방과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차트 작성을 책임졌는데 본4선배님과 교수님들의 조언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골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건 처음이라 겁이 났는데 모든 주민들께서 저에게 잘 해주시고 간식도 챙겨 주셔서 더욱 성실히 임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여름날 땀을 같이 흘리는 교수님과 선배님들과 함께 하니 시간도 빠르게 흘렀고 군부대에서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보조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나에게 매우 새로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개와 달리 고양이는 상처가 잘 아물어서 제대로 봉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새로웠습니다. 또한 고양이 TNR수술을 한 뒤 뒷을 처음 놓은 자리 그대로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인데, 고양이 또한 본인의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나면 따돌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양이는 개와 달리 혼자 사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바꿔줘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수술 보조 중 나의 역할은 주로 TPR측정이었습니다. 마취된 고양이에 주입되는 마취제나 항생제, 백신들의 이름을 시간에 맞춰서 적고 오분마다 심박수, 온도, 호흡수 등을 꾸준히 체크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일은 수술이 끝난 고양이를 깨어날 때 까지 옆에서 보호해주는 일입니다.

둘째 날 어느 보호자분께서 고양이 중성화를 맡기시려고 수술방에 넣어놓는 순간 고양이가 창문으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해서 고양이를 찾으러 갔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서 다들 상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고양이가 다시 보호자에게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양이도

개 못지 않게 참 똑똑한데 사람들은 매정한 동물, 단지 귀엽기만 한 시크한 동물로 인식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 사건을 친구들에게 말해주니 다들 깜짝 놀라워 하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은 수술을 마무리 하고 다 함께 덕적도 문화탐방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에서 쉽게 느낄 수 없었던 섬 마을의 편안함, 확 트인 경치등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바지락과 게들이 널려있던 갯벌을 다 같이 들어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되니 군부대에서 먹었던 정성가득한 들과 저녁에 다 같이 먹었던 치킨, 내 발을 점령한 산모기들을 떠올리며 아직도 추억에 젖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어로 시작했던 내 봉사가 이렇게 뿌듯한 삼일을 채우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내년에 다시 갈 기회가 생긴다면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오고 싶습니다.

#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 이주영

올해 본과에 입학하여 의료 봉사활동에 참여할 자격을 갖춘 후, 처음으로 하게 된 활동이 이번 덕적도 학군 의료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임상 실습을 한 적도 없고, 동아리 봉사활동도 한 차례밖에 나가보지 못하였기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봉사 당일 날 활동까지 모든 것이 어색하기도 하였고,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처음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할 때는 단순히 인천의 한 섬에 의료 활동을 하러 가는 줄로만 알았기에 후에 이 활동이 해군과 연합하여 수 년 째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솔직히 부담이 되기도 하였고, 그래서인지 더욱 열심히 준비하여 참여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사전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선배님들께서 봉사에 필요한 약품과 수술 용품 등을 챙기실 때 아무런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얼른 많은 것을 배워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존경심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대학원 선생님들께서 약품과 간단한 주의사항, 수술 시 주의해야할 점 등을 알려주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의 본과 생활 동안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를 가기 3일 전 본과 1, 2학년 학생은 보정법을, 본과 3, 4학년 선배님들은 정맥 주사법 등을 배웠습니다. 보정법을 배운 후 실습견을 대상으로 실제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서투른 점이 그대로 드러났고, 보정법이 진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 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첫 날, 김재영 고양이 수의사회 협회장님과 함께 수술팀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전 교육 도중에 약 6분에 달하는 암컷 고양이 중성화 수술 영상을 보고 왔기에 수술 시간이 짧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수술실의 업무 강도 및 시간도 그리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술 현장에서는 수술 이전의 마취부터 차트 작성, 수술 후 관리까지 보조역할이 필요한 곳이 제 생각보다 정말 많았습니다. 실제 동물로부터 체온과 맥박, 호흡수 등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사전교육 중 실습 시간 잠깐을 제외하고는 처음이었고, 심지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수술이었기에 무척 긴장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서투른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선생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순조롭게 맡은 일을 해낼 수 있었고, 생각보다 많이 몰린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 둘째 날, 이인형 교수님과 함께 야외진료를 나갔습니다. 덕적도 곳곳의 가정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에게 백신을 주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사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전 시간에는 덕적도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교수님과 함께 백신을 주사하고 레볼루션을 바르는 등의 의료 활동을 하였는데, 각 마을마다 한 장소에 주민 분들께서 키우시는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주신 덕분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흑염소를 두 마리 키워서 레볼루션을 발라주기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아버님들께서 아무렇지 않게 강아지를 삶아 먹었다는 등의 얘기를 저희 앞에서 하시거나, 주사 시 강아지가 약간이라도 몸부림을 치면 보호자 분께서 머리를 세게 때리시는 등의 옛 사고방식이 아직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 분들도 저희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저희도 준비해간 만큼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덕적도 인근의 소야도로 배편을 통해 넘어갔습니다. 트럭을 타고 다니며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을 둘러가며 의료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더운 날씨 때문에 지치기도 하였지만 직접 찾아가며 주민 분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보람찼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본과 3, 4학년 선배님들 위주로 수술이 몇 건 진행되었기에 의료 활동에서 큰 역할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오후에 진행된 문화탐방 시간에는 군부대 위쪽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가장 높은 고도에 올라가 덕적도의 전망과 헬기장 등을 구경하였습니다. 또한 유명 관광지인 덕적도의 명소를 구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았다면 짧았고, 길었다면 꽤나 긴 봉사활동이었습니다. 200여 회에 달하는 백신주사와 25회의 중성화 수술을 이틀 남짓의 일정 동안 진행하였고, 흑염소에 레볼루션을 접종하는 등의 이색적인 경험도 많이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한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생으로서 이런 수술 현장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가 있는 봉사활동이라고 느꼈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선물을 안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박 삼일, 수의대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며칠을 묵어가며 나온 봉사인 만큼 앞으로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 **'17년 學軍 의료 봉사활동을 마치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1학년 구가운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서 형식적인 봉사의 형태가 아닌 봉사 참의미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었고, 생명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활동이 되어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을 간다는 것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하지만 의료 약품, 물품들을 선배, 동기, 그리고 수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나 혼자만의 봉사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수의대와 해군을 대표하는 일임을 깨닫고, 조금씩 책임감을 느끼며 준비와 함께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약품의 주의사항과 의료품의 사용법을 되짚어보면서 혹여나 나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어 진지하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 덕분에 준비과정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좋은 봉사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치고 1일차에는 인천으로 이동을 하여, 다음 날 있을 봉사에 대비하여 물품정리를 마치고 다음 날 열심히 하기 위한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2일 차부터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수술 팀과 이동진료 팀으로 깔끔하게 나누어서 일의 효율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일차에는 이동 진료 팀이었는데, 정말로 피약별에 여러 집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백신을 놓아주면서 보이는 개들마다 넓은 자연 속에서 활발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서 힘이 났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3일차에는 수술 팀에 합류하게 되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마취기록지에 수술하는 개, 고양이들의 상태를 꼼꼼히 적어 나가보니 정신이 없어 어느 새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본과 1학년이기에 마취기록지를 적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실수하지 않게 집중해서 했습니다. 특히 수술이 끝난 개, 고양이가 의식을 되찾기 전까지 유심히 잘 지켜보다가 마취에서 깨어날 때가 되면, 그 때에서야 숨이 좀 트었는데, 한 아이가 깨어날 때마다 보람찬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4일차에서는 선배들과 선생님들은 마지막 수술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수술이 끝나고 회복이 된 아이들을 방생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1층으로 옮겨두어 한 곳에 두었는데, 첫 날처럼 아이들 눈에 힘이 실려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보기 좋았고 일이 점점 마무리되는 것을 느끼며 뿌듯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군을 따라 덕적도의 명소들을 구경했는데, 3박 4일간의 봉사활동이 끝나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었고, 덕적도라는 아름다운 섬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길었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았던 지난 3박 4일이었지만, 학교생활을 다시 돌아보았을 때 가장 보람찬 시간 중 하나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처음으로 의료봉사를 감으로써 생명 사랑을 실천으로 옮기고, 올바른 수의사로 성장하는 것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활동이 된 것 같아 이번 덕적도 ‘學軍’ 의료 봉사에 참여한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앞으로도 좋은 마음가짐으로 봉사에 힘쓰겠습니다!